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3-4월호
2018년



사진: 한인회 대보름 잔치에서의 부채춤

한인회소식

교민 여러분

문상귀

뉴멕시코 한인회장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가뭄 끝에 단비와 함박눈이 뉴멕시코를 축축이 적셔준 계절이었습니다. 가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순조로우실 줄 믿습니다. 한인회는 교민들의 관심과 후원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에는 신년 첫 임원회를 열고 2018년 연간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부서별 사업계획안을 더해 연중 사업계획이 더 풍성해질 것으로 봅니다. 교민 사회를 위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임원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저녁에는 신임 총영사님이 주최하는 동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인회 임원, 이사회, 한국학교, 코원, 어버이회, 전직 한인회장이 참여해 뉴멕시코주 한인회의 발전과 동포사회에 이바지할 현안을 나누었습니다. 김완중 총영사님께서 신속하고 정확한 영사 업무를 통해 교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 한국학교와 여러 현안을

내용 CONTENTS

- 한인회소식 | 교민여러분 | 문상귀 : 1
- 한인회소식 | 어버이회 소식 | 윤태자 : 2
- 한인회소식 | 대보름 잔치 성대히 치러 : 3
- 한인회소식 | 총영사와 동포간담회 : 4
- 한국학교소식 | 한국학교소식 | 박영신 : 5
- 지역사회소식 | 지역사회 지난 소식 : 6-8
- 칼럼 | 별것 아닌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 김기찬 : 9
- 수필 | 동동 떠다니는 미관 | 이정길 : 10
- 생활상식 | 4월의 정원관리 | 서혁상 : 11
- 수필 | 2인자 예찬 | 이명길 : 12
- 교양/문화 | 사계절이 다 독서의 계절 | 한승우 : 14
- 생활상식 | 행복한 미국생활 #17 (Child Care) : 16
- 신앙생활 | 주를 앙모하는 자 #4 | 김준호 : 18
- 전도 | 빌리 그레이엄 목사: 한국 첫 방문과 ABQ | 이경화 : 20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교회 안내 : 23
- 광고 | 뉴멕시코주 한인업소 : 24-25

<교민 여러분> 1페이지에서 계속

최선을 다해 돌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에는 한인회관에서 삼일절 기념식을 했습니다. 3월 4일에는 대보름 잔치를 통해 교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럼도 깨고 오곡밥을 나누며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13일(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의 순회 영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업무가 필요하신 교민들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한인회 연간계획에는 한인회 기금마련 행사, 아시안 페스티벌, 골프대회, 6.25 참전 용사 초대, 광복절 행사, 효도 관광, 10월 첫 주 토요일의 김치 축제, 11월 한인회장 선거, 12월 한인의 밤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3월 13일(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문상귀 한인 회장
(505-991-8888)에게로 하면 됩니다.

민원업무 내용에 관한 문의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이메일 : consul-la@mofa.go.kr
전 화 : 213-385-9300, 내선번호 15 또는 52
로 하면 됩니다.
한인회관주소: 9607 Menaul Blvd. NE ABQ NM87112

Yummi House

雅緻苑

Chinese Cuisine(중화요리 전문식당)

Mon-Sun. 11:00am-9:00pm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Phone (505) 271-8700

추천 메뉴

삼선짜장면 / 삼선짬뽕

해물탕면 / 다섯가지 냉채

간짜개, 닭고기 튀김과 마늘소스

탕수우육 / 양장피 잡채

어버이회소식

윤태자

뉴멕시코 한인회
수석부회장

[사랑 1]

-김남주-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고 재 뼈를 갈아 재로 뿌릴 줄 안다

천년을 두고 봄의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줄 안다

그리고 가실을 끝 낸 들에서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한인회 봉사를 하면서 위의 시가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았던 기간동안 어버이회에서 봉사하며 느낀 것은 따뜻한 사랑이 이곳 한인 사회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미우니 고우니 해도 언제나 봉사자들이 있었고 멈추지 않고 식사준비를 해서 매주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고 빙고, 체조도 하며 수요일을 보냅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어디선가는 샘물처럼 봉사와 후원이 멈추지 않고 흘러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넘쳐나는 샘물은 썩지 않지요. 넓고 큰 강물처럼 흘러가지는 않지만 고여서 탁해지지도 않습니다. 임원들 외에도 항상 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있었고 수고하는 손길 속에 행복을 나누어 갑니다. 그렇다고 봉사자나 후원자들이 다 부유하고 여유가 많아서 음식을 대접하거나 회관에 나와 음식을 하고 치우고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가슴에 사랑을 담아 정을 나누려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시간을 내서 봉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어버이회는 오랫동안 여러 방법으로 변화돼 왔습니다. 점점 더 효율적이고 나은 길로 가도록 한인회와 어버이회 회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2018년도 어버이회 회장은 유금림 씨입니다. 회원들 간에 연락과 방문 등의 다양한 수고를 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2월까지 아리랑 마켓에서 떡국으로 새해를 시작해 주셨고 차성희 씨, 이희정 씨 이경화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 봉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보름 잔치 관련 추가 사진



한인회 대보름 잔치 성대히 치러

한인회는 3월 4일 저녁 6시 한인회관에서 대보름 잔치를 열었다. 박찬영 사무총장의 사회, 김기천 목사의 기도로 잔치를 시작했다. 김기천 목사는 작년 한 해 지켜주신 것처럼 올해도 한인들, 특별히 한인회를 이끌어 가는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길 기도했다. 문상귀 회장은 “지역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교 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대보름 잔치를 마련했다. 대보름은 5대 명절 중 하나로 첫 보름달과 함께 풍년을 기리는 명절이다. 이번 행사는 외부 후원 없이 한인회 자체에서 마련한 행사로 쌀 50포 등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 원근 각지에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전 한인회장인 이경화 장로가 축사했다.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 한인회 임원들이 열심히 봉사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모습에서 가족애를 느낀다. 한국이 동계올림픽으로 전 세계적으로 칭찬이 자자한 것처럼 앨버커키 한인들도 뉴멕시코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희정 예술부장이 이끄는 한인회 예무단 이희정, 김옥선, 박애나, 박지나 씨의 부채 산조가 있었다. 식사를 위해 이석종 목사가 기도했다. 이석종 목사는 백의민족을 사랑하셔서 과거의 분쟁을 그치고 이곳까지 와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하고 고국의 평화를

빌고 애찬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고 임원이 더욱 분발하고 즐겁게 일하는 속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길 기도했다. 풍성한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이희정, 김옥선 씨의 아리랑, 이희정 씨의 장구춤을 관람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오재미 던져 넣기, 윷놀이로 즐겁게 보냈다. 제기차기와 퀴즈도 준비했으나 시간 관계로 생략했다. 오재미 게임은 3, 4미터 앞에 놓인 통에

10개의 오재미를 던져 가까운 통에 넣으면 1점, 먼 곳의 통에 넣으면 3점을 얻는 게임으로 각 선수는 10개의 오재미를 던졌다. 가장 떠들썩하고 넘치는 긴장으로 하이라이트가 된 게임은 역시 윷놀이였다. 8 개의 팀을 구성 조나단 드레지 씨가 팀장인 미구인 팀이 박광종 씨를 팀장으로 한 코원 팀을 누르고 우승했다. 이경화 장로를 팀장으로 한 장로 팀과 문상귀 회장을 팀장으로 한 한인회장 팀은 준결승에서 탈락했다. 김기천 목사 팀, 윤태자 임원 팀, 유금님 어버이회 회장 팀, 정대식 회원 팀은 초반 게임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한인회에서 준비한 쌀 50포는 상품으로 또는 선물로 모든 가정에 하나씩 선물했고 사무라이 식당에서 제공한 상품권은 게임 상품으로 사용했다. 김영신 전 한인회장이 행사를 위해 200불을 후원했다. 행사를 주관한 문상귀 회장은 대보름 잔치를 성황리에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임원들께 감사하고 음식을 준비한 임원들, 행사 준비위원, 고전무용, 오재미를 만드느라 수고한 민명희 부회장과 김숙희 씨, 뒷정리를 맡은 남성 임원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했다. 올 첫 사업을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교민들은 행사를 준비한 한인회 임원과 음식과 게임을 준비한 많은 봉사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보름 밤을 즐기고 밤늦게 보름달을 보며 귀가했다.

(글:이은주 기자) ■



총영사와 동포간담회

2월 22일 저녁 7시 사무라이 식당에서 지난 12월 27일에 부임한 김완중 신임 LA 총영사가 뉴멕시코를 방문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임 후 첫 방문으로 라스베가스과 피닉스를 거쳐 류학석 동포 담당 영사가 대동했다. 문상귀 회장은 참석한 17명의 임원, 이사, 단체장을 소개하고 포부를 말씀해 달라고 했다. 총영사는 “뉴멕시코를 대표해 참석하신 분들의 얼굴이 모두 밝고 웃음이 가득한 얼굴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은 말 그대로 격동의 한 해였다. 지난 2월 이래 총 15번에 걸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100만 우리 동포사회의 경제적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포부는 첫째로 해마다 2200만 명의 국민이 업무, 유학, 관광 등의 이유로 외국에 나가고 재외국민 240만 명을 포함한 재외동포 720만 명의 민원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순회 영사업무를 통해 민원을 개선 신속하고 더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한인 2, 3세대들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주류사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차세대 정치인을 양성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 셋째,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인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겠다. 넷째, 탈북자와 입양아, 신분 문제 등 정책적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부분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겠다. 피닉스에서 10여 명의 입양아를 만나고 왔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에만 12만3,000명, 비공식으로 15만에서 16만 명의 한인 입양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만들고 싶다. 병역 문제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한국 정부와 논의해 행정적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문제와 중국, 미국과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해결돼 평화의 한반도,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다. 이어 문회장은 건의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단체장으로서의 목소리를 담아 발표해 달라고 했다. 이경화 장로는 한국에 비교하면 평창 정도쯤 되는 뉴멕시코 방문을 감사하고 한인회, 한국학교, 코원, 아버지회가 LA 못지않은 열정으로 미력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준호 장로는 동계 올림픽을 열고 있는 평창의 최적화 지형에 관해 얘기하고 뉴멕시코 한인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아버지회 회장 유금님 씨는 총영사의 방문을 감사하고 평창 올림픽을 통한 한국의 발전상을 보게 돼 기쁘고 손주들이 부모의 나라에 가보고 싶은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김기천 목사의 재외동포와 한인회를 축복하는 기도로 식사를 시작했다. 코원 박광중 회장이 차세대 지도자 양성의 일환으로 뉴멕시코 대학에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간담회에서 김완중 LA총영사



문상귀 회장과 류학석 동포담당영사



사무라이 식당에서 개최한 동포 간담회

바란다고 했다. 박영신 한국학교 교장은 총영사관 주최, 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 등 LA에서 있는 한국어 교육 관련 행사에 뉴멕시코가 원거리 지역이라는 특수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라며 이를 감안한 프로그램을 바란다고 했다. 총영사는 양로센터나 한국어 관련 숙원 사업을 위해 뉴멕시코 주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치력 신장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다음날인 2월 23일 Christopher Ruszkowski 뉴멕시코 교육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뉴멕시코 주 사회과목지침 개정 방향 관련 협의했다. 또한 한인회관에 들러 한국학교 교실의 방음 사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찬영 사무총장과 윤태자 부회장과 함께 한국전 기념비에서 추모하고 일정을 마쳤다. 김완중 총영사는 1963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외무고시 24회, 1990년 외교부 근무를 시작 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부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일본한국대사관 2등 서기관, 오사카 총영사관 1등 서기관, 뉴욕 총영사관 영사, 주페루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싱가포르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2016년에 재외동포영사국 국장을 역임했다. 김완중 총영사는 3년동안 남가주,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를 위해 일한다. (글: 이은주 기자:아리조나타임즈) ■

한국학교소식

봄학기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짧은 방학을 보내고 새 학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만나는 얼굴들에 반갑고, 새로운 얼굴들에 이번 학기도 잘 해 낼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지난 학기부터 성인반에는 UNM에서 TESOL 석사를 전공하고 있는 배현희 선생님께서 성인 및 중.고등학생반을 맡아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는 UNM에서 Chemical engineering을 전공하고 있는 김예빈 선생님께서 아동반을 지도해주십니다. 새 선생님들과 함께 더 발전하고 다양한 수업으로 학생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학기에는 지난해에 재외동포재단과 독립기념관이 협력하여 만든 교재, “우리 땅, 독도”를 중심으로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독도 모형 만들기 시작해서 단체화 그리기, 독도 아트북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박영신
한국학교 교장



독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조국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뉴멕시코 한국학교의 특별활동에 한인회장님을 비롯한 한인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번 설날을 맞아 민명희 부회장님께서 오셔서 아이들에게 세배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떡국을 먹었고 이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넓혀 갈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한국학교를 밀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



독도 단체화 그리기



김예빈 선생



배현희 선생



설날 행사 사진입니다.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1월-2월)

로스 앨러모스 리사 신씨 뉴멕시코 하원의원 출마



리사 신(Lisa Shin) 씨가 뉴멕시코 43 지역구 하원의원 출마한다고 지난 1월11일 저녁 UNM 로스앨러모스 캠퍼스 Jeannette Wallace 홀에서 열린 GOP 월간 회의에서 발표했다.

신 씨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대의원 대표로 대선 후보자 지지 연설을 하였던 인물이다. 뉴멕시코 하원 위원이 민주당 소속 스테파니 가르시아 리차드 현 하원 의원이 2018년 말에 의석을 비우게 됨에 따라 공석이된 의석을 향한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지난 2월12일자 The Santa Fe New Mexican 신문은 로스앨러모스 공화당 입후보 리사신씨에 관해 상세한 기사를 올렸다. 리사신 박사는 한국이민자의 딸이며 안과 검안사(optometrist)로서 20여년 비즈니스를 해왔고 마사츄세츠주에 있는 Wellesley 대학에서 생화학 전공을 했으며 금년 49세라고 했다. 신씨의 정치견해도 긴문 기사에서 상세히 보도했다. “나는 지금 우리의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현 행정부는 새로운 정책으로 경제적 풍요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뉴멕시코는 10여년 동안의 불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성장을 이를 정책설정에 초점을 돌려요 합니다.”라고 했다. 교육면에 대해서는 직업교육 향상, 인터넷 강좌의 확장, 부모님들의 공립학교 교육에 참여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씨는 앨버커키에 거주하는 신경일 목사와 신수자 사모의 장녀이다. ■

아리조나타임즈(18-1-17) <리사 신 뉴멕시코 43지역구 하원의원 출마 선언>과 The Santa Fe New Mexican (2018-2-12) <Los Alamos Republican to seek open House seat> 기사에서 발췌

미주 한인의 날 축하 행사

미주 한인 이민 113주년을 맞는 1월13일을 마지하여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기념행사가 11일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비롯하여 여러 주에서 이민 선조들의 개척정신을 되새기고 한인사회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가 열렸다.

1월12일 LA 시의회에서는 미주 한인 이민 115주년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는 LA 시의회 주요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참석, 1903년 1월13일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한인 이민 선조들을 기리고 한인사회 발전을 축하했다.

이날 김완중(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LA 총영사, 지미 고메스 연방하원의원, 데이빗 류 LA 시의원 등 참석자들이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고 있다.

1903년 1월13일은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를 지원한 한인 이민 선조 102명이 갤릭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호놀룰루 항에 내린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는 '미주 한인의 날'은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계 이민자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선포했고 이어 미국연방의회가 2005년 12월 13일 하원에서, 16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미주한인의날'을 법으로 통과시키면서 역사적인 날로 확정되었다.

금년 한인의 날을 마지하며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축하 성명을 통해 미주 한인들의 공헌과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최초의 한국 이민자들은 자유와 꿈을 실현할 기회를 찾아 미국에 왔다”며 오늘날 한인들은 “미국의 부강과 번영에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랑스러운 시민들”이라고 밝혔다.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은 '2018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이번 미술대회는 미 전역에서 833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입상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작품을 전시하고 작품 일부는 달력으로 제작도 한다고 한다. ■



사진: 달라스에서 열린 미주한인의 날 퍼레이드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1월-2월)

뉴멕시코 출신 한인 게리 리씨의 트윗

알버커키 한인 가톨릭 공동체의 한 가족인 이사현 씨와 이옥희 씨의 장남인 게리 리 씨가 올린 트윗이 미국의 미디어에 큰 화제가 되었다.

지난 1월 13일 리 씨는 7년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시절 백악관 보좌관 비서로 일할 때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발로 난생 처음 Retweet가 아닌 직접 글을 써서 올린 트윗(Tweet)을 하게 된 것이다. 그의 글은 놀라운 정도로 빠르게 퍼져가며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워싱턴포스트는 14일 게리 리씨가 올린 트윗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보다도 평범한 시민 리씨의 트윗이 더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게리 리 씨는 NBC뉴스에서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계 여성에게 무례하게 출신지를 질문한 일을 언급하면서 “어디 출신이냐”가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두려워하는 질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함께 일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에 관한 일화를 소개했다. 한국계 공무원을 대하는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달랐음을 보여주는 일화다.

게리 리 씨는 2007년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대학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졸업 후 시카고에 있는 오바마 대선 캠프에 들어갔다. 대선이 끝나자 리 씨는 백악관에 들어가 대통령 보좌관 비서실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2011년 리 씨는 풀브라이트(Fulbright) 장학금을 받아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자 백악관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백악관 근무 마지막 날 리 씨가 대통령 집무실로 인사드리러 갔더니



오바마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맞아줬다. 오바마는 말단 직원인 리 씨가 한국으로 공부하러 떠나는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 그 순간의 장면이 사진에 찍혀 기억에 오래 남을 사진이 됐다. (왼쪽 사진)

리 씨는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와 어렵게 살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 이야기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내 부모는 장남이 백악관에서 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일이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할까? 이 곳이야 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이민자의 나라인가”라고 썼다.

리 씨의 첫 트윗에 15만명 이상이 ‘좋아요’를 눌렀다. 첫 트윗을 올린 1월13일, 이날이 공교롭게도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 이었다. 1월15일 CNN Tonight방송에서 Don Lemon이 게리 리씨를 인터뷰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 www.facebook.com/voiceofnm/ 또는 유튜브 <https://youtu.be/U7sQ1Kc9TAw> 링크를 통해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뉴멕시코 지역사회 지난소식 (1월-2월)

신동완 교수 사이버 개발팀 소개



New Mexico Tech 컴퓨터 공학과 학과장인 신동완 교수팀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기사가 1월29일자 Albuquerque Journal의 Business Outlook 에 실렸다.

뉴멕시코 주 소코로에 소재한 New Mexico Tech (New Mexico Institute of Mining and Technology) 대학에는 사이버 보안을 연구하는 두 개의 주요 연구부서인 ICASA와 컴퓨터공학과가 있다.

1월 29일자 앨버커키 저널의 부록인 Business Outlook에 이 대학의 두 연구부서가 소개 되었다.

New Mexico Tech 내의, 12 명의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 ICASA (Institute of Complex Additive Systems Analysis) 연구소는 미 연방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사이버보안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고 있다.

New Mexico Tech 컴퓨터공학과 학과장이자 부교수인 신동완 교수는 새로운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학부생으로 구성된 연구팀을 이끌고 있다. 신 교수는 “컴퓨터공학과 교수진은 차세대 사이버 전문가를 교육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이버 보안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ICASA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공학과는 강력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컴퓨팅이론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뉴멕시코텍의 컴퓨터공학과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컴퓨터공학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학과가 만들어진 1966년 이래 약 1,000 명의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신동완 교수는 연구분야 뿐만 아니라 앨버커키 가톨릭공동체에서 사목회장으로 섬기는 등 한인커뮤니티를 위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글:이은주 기자) ■

약속하였지만, 상영 직전에 예매가 너무 없어서 영화상영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한국인 정서는 예약문화에는 좀 약하여 예약이 저조하자, 소규모 극장측에서는 영화의 상품성을 낮게 평가한 듯 싶었다. 그래서 재상영 예약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는 교인들과 함께 1월 26일 영화상영분에 예약을 시도하였고 12명의 예약을 이뤄냈다. 결국 영화는 상영되었고 앨버커키에서도 로스알라모스 연구소에서도 여러 가정이 함께 하였다. 영화도 재미있었지만 소극장을 가득 채운 한국인들의 열심에 서로가 반가이 인사하며 어둔 극장 안에서 서로 한국인임을 확인하던 것이 더 감격적이었다. 이후에도 산타페에서 한국영화가 상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안고 극장을 나섰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렇게 깊은 내륙에서 경험하게 된 것은 놀랍고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

(글: 김석훈 목사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교회) ■



클로비스 한인교회 소식

뉴멕시코 클로비스에 있는 클로비스 한인교회(담임 목사 이성희)에서는 오는 4월 15일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는다. 이날은 창립 27주년 감사예배와 김경애 권사 임직식이 있을 예정이다. 감사예배는 알테시아 장로교회 담임이신 정효남 목사님을 초청해서 감사로 모시고 예배를 드린다. 정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오셨으며 KPCA 소속이시다. 창립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45분에 시작한다.

클로비스 한인교회의 주일 예배 외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매주 금요일 저녁 예배가 오후 7시30분에 있고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30분에는 성경공부/친교 모임이 있으며 새벽기도회는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6시에 있다. (글:편집부) ■



산타페에서 한국영화 관람

산타페 Jean Cocteau Cinema(418 Montezuma Ave, Santa Fe, NM 87501, 505-466-5528)에서 1월 5일에 한국에서 천만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함께'의 상영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내륙 깊은 곳에서 한국영화가 상영된다니 너무 감격적이었다. 교회에도 광고하여 교인들과 함께 가기로

별것 아닌 일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오래된 기억입니다. 공중전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지요. 오늘날처럼 휴대전화가 없고 대신 공중전화를 많이 사용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길거리마다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되어 사람들과 연락해야 될 경우에는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길을 걷다보면 어떤 공중전화박스에는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지요. 사건의 발단은 차를 기다리는 사람과 전화를 거는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화를 걸고 있던 사람은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좀 길게 전화통화를 하였나봅니다. 뒤에서 참다못한 사람이 한마디 하자 전화하던 사람이 이를 듣고 화를 내면서 싸움이 결국에는 살인으로 번진 것이지요. 전화를 걸러 온 사람들이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는 문제에 목숨을 건 사건이었지요. 여기서 전화박스에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문제는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는 모두가 일치하지요. 반면에 전화를 길게 사용하느냐 짧게 사용하느냐는 사람들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빠진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뉴멕시코주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1년마다 한 번씩 모이는 연회에 참석했었지요. 그때 연회 감독님께서 마치 구호처럼 “In Essentials Unity, In non-Essential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너그러워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감독님은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본질적인 것들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적이라면 예배를 전통적 방식(Traditional service)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현대식(Contemporary service)으로 드리느냐는 비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지요. 또한 주일날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 점심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당연히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것이란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기관이 세워진 본래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교회도 자체 목적이 있지요. 우리교회의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교회처럼 열정적인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헌신적인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 전도를 위해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는 교회, 세계 선교를 돕는 교회”라고 선교 선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목적에는 모든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 다른 문제들에 관해서는 나랑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에는 너그럽게 수용해주는 관용이 필요합니다.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총기 사고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문제는 교회 안전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교회 새벽예배 때에는 예배를 시작하면 교회 입구 문을 잠급니다. 안전을 위해서이지요. 사실 목사인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놓고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분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교회 입구 문을 잠그는 것도 반대할 수만은 없지요. 몇 달 전 새벽에 도둑이 교회 주차장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트레일러를 훔쳐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 교회 안전에 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이제는 교회에 담장을 설치하고 주차장 출입문까지 만들어 놓았지요. 감사한 것은 담장과 출입문이 보기 좋게 설치되었습니다. 주차장 출입문에 들어오시려면 비밀번호를 누르면 되지만 모를 경우에는 호출버튼을 누르면 건물 안에서 열어주게 되어 있지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예배드리는 것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들 즉 교회 출입문이 닫히고 비밀번호나 호출버튼을 누르는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예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마 11:12)”고 가르친 것처럼 문이 열리고 예배처소에 들어오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동동 떠다니는 미관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해마다 4월 중순이면 나는 귀한 손님을 맞이한다. 지난해 9월에 떠났던 벌새들이 다시 찾아온다. 녀석들이 오고 가는 때는 알지만 날짜까지 정확히 짚을 수는 없어서, 서재에 앉아 시선을 자주 창밖에 둔다. 먹이통이 내걸리는 단풍나무 아래서 두리번거리는 녀석이 보이면 부랴부랴 물을 끓이기 시작한다.

미주에서만 볼 수 있는 벌새는 곤충과 새의 중간쯤에 있는 동물로, 새보다 벌에 가까워 보인다. 무지개 빛깔 깃털의 광휘와 우아함이 마치 보석처럼 아름다워, 보는 사람을 매료한다.

로켓처럼 빨리 움직이다가도 어느새 제자리 날기를 하고, 위아래 앞뒤 옆 자유 자재로 난다. 사람들은 벌새들의 생태에서 진정한 자연의 경이를 느낀다.

목에 돌린 띠가 햇빛을 받으면 유난히 선명하게 번쩍이며, 그 색깔과 함께 몸의 크기, 부리의 길이나 모양 등에 따라 340여 종으로 나뉜다. 아몬드 한 알의 무게인 2그램에서 큰 것은 20그램까지, 종에 따라 갖가지다. 칠레의 최남단에서 알래스카 남부에 걸쳐 사는데, 안데스 산맥 저지대의 우림과 산꼭대기의 우림 그 두 곳 사이에서 290종이나 발견된다. 큰 벌새들은 페루와 칠레에 서식하고,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벌새는 루비색 목띠를 가진 것을 비롯하여 27종에 달한다.

끓인 물 4에 백설탕 1의 비율로 녹인 인공 넥타를, 긴 부리에 알맞게 만들어진 먹이통에 담아 밖에 내다 건다. 행여 꽃의 넥타가 부족할까 싶어 만들어 준다지만, 가까이에서 터를 잡아 살면서 계속해서 찾아오게 하려는 다른 속셈이 있어서다. 다섯 달 동안 요염한 자태를 보며 즐길 수 있는데다가, 다음 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녀석들이다.

일 초에 무려 백 번이나 날개를 퍼덕거리고, 심장이 1분에 천 번을 더 뛰는 종도 있다. 시속 100킬로미터로 날 때는 꼬리에서 짹짹 소리가 난다. 실새없이 움직이며 힘차게 날기 때문에, 하루에 먹는 넥타가 몸무게를 넘어야 한다. 두 쪽으로 나뉜 튜브 모양의 혀가 포수의 장갑처럼 말려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지면서 넥타를 낚아채고, 이어서 부리를 죄어 짜 목구멍으로 넘긴다. 그 동작을 1초에 무려 열다섯 번이나 반복한다. 19세기의 자연 과학자들이 추측한 사실을, 21세기의 정밀한 카메라들이 한 가지씩 증명해주고 있다. 학자들은 지금 벌새를 통해 생물학이 물리학의 법칙을 스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알아 내고 있는 중이다.

벌새의 나는 방법을 처음으로 분석한 것은 1930년대 후반 나치 독일에서 였다고 한다. 조류학자들을 시켜 밝혀내게 한 다음, 헬리콥터를 만들었던 것이다.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날개짓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 같이 몸을 위로 올려주며, 그때 기둥 모양으로 보이는 공기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그 소용돌이가 벌새를 제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기동성을 갖게 해준다. 필요하면 날개를 비틀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한다. 몸무게의 4.2퍼센트에 달하는 뇌를 가지고 있어서,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아주 특수화한 방법으로 먹이를 섭취하기 때문에, 통이나 종 모양을 한 꽃을 좋아한다. 내집 앞뒤 뜰에서 피는 아메리카 능소화는 녀석들이 넥타를 빨기에 아주 알맞은 모양에 넥타도 많이 생산한다. 정원 용품 가게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먹이통은 거의가

플라스틱 제품이다. 빨간색 바탕에 노란 꽃잎 모양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원통형 몸통을받치고 있다. 대부분 겉게 되어 있으나, 유리창에 붙이게 된 것도 있다.

구름이 끼는 날에는 더 자주 먹이통을 찾아오고, 더러 나무가지에 앉아 요염한 맵시를 보여주기도 하는 양증맞은 녀석들. 저희끼리 쫓고 쫓기는 모습, 빨간꽃에 다가가는 모습, 꽃에 부리를 박고 있는 모습, 연신 날개짓을 하면서 먹이통의 노란 꽃잎에서 설탕물을 빠는 모습 등을 보며 환상에 빠진다. 서재 앞 그늘진 곳이나 아이비 덩굴 위를 훑는 모습도 보인다. 공원에 앉아 있노라면, 나무 그늘 습한 곳에서 나사 모양으로 빙빙 돌며 날아오르는 하루살이 떼를 맴도는 것도 눈에 띈다. 그 작은 날벌레들이 알에 들어가야 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한다.

수명이 5 - 6년인 벌새는 별난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온이 낮거나 먹이가 부족할 때는, 심장의 박동수를 1분에 평균 30번으로 줄인다. 동지나 동굴에서 잠이 들면, 곧바로 동면하는 동물이 보이는 것과 같은 무반응 상태에 빠져 버린다. 사람이 만져도 죽은듯 반응을 못하는 상태로, 물질 대사를 줄여 새벽까지 기아 상태를 모면하는 방편이다. 동이 트기 무섭게 먹이 사냥에 들어간다.

내집 앞뒤 마당을 떠다니는 아름다운 풍경. 녀석들을 맞이하고 보내는 일이 연중 행사다. 다섯 달 뒤 어느 날 보이지 않으면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지면서, 온 것은 가게 되어 있고 태어난 것은 죽게 마련이라는 자연의 섭리가 새삼스레 떠오른다. ■

4월의 정원 관리

서혁상

오수나 너서리(Osuna Nursery)

제너럴 매니저

알버커키에서 4월의 정원을 관리하실 때 세심하게 날씨를 관찰하는게 중요합니다. 평균 낮 기온이 60-70도를 웃돌지만 밤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춥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시기(the average last freeze)가 4월 18일 경입니다.

4월은 많은 꽃 관목(flowering Shrubs)들이 개화(Blooming)하는 시기입니다. 개화하는 관목으로는 개나리(Forsythias), 서양 까치밥나무 (Golden Current), 산분꽃나무(Viburnums) 등이 있고 라일락(Lilacs)은 꽃망울이 생기며 등숙 식물(Wisteria) 또는 등나무는 꽃이 만개(full Bloom)하는 기간입니다. 이른 봄에 꽃을 피웠던 과일나무(Fruit Trees) 또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 과일나무(Ornamental Fruit Trees)들이 꽃이 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종류로는 꽃사과나무(Crabapple Tree), 복숭아 나무(Peach Tree), 천도 복숭아나무(Nectarine Tree), 체리 나무(Cherry Tree), 꽃 배나무(Flowering Pear Tree) 등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관목(Flowering Shrub)이 꽃이 지고 나면 가지치기(Pruning)를 해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위로 인해 동해(Cold Damage)를 입은 장미(Rose)나 관목(Shrub)은 피해를 입은 줄기와 잎을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잔디(Lawn)가 있으신 분들은 또 잡초가 발아하기 전에 발아전처리제(Pre-emergent weed control)를 사용하시기에 적당한 시기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져 정원의 물 사용량이 늘어나기 전 집에서 사용하시는 점적관수(Drip Irrigation)나 스프링클러 시스템(Sprinkler System)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해주셔야 합니다.

4월에는 꽃이나 채소를 심기전 양질의 퇴비(Compost



and Manure)를 사용하여 토양의 화학성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심을 수 있는 채소 종류로는 콩 당근 오이 고추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심으신 후에도 낮과 밤의 온도 차이로 인해 농작물에 서리가 내리면 조직이 얼어붙어 파괴되는 냉해 피해(Frost Damage)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리방지 덮개(Frost Cover) 등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름이나 가을에 꽃이 피는 구근식물(Flower Bulbs)인 달리아(Dahlias), 카나(Cannas), 백합(Lilies), 글라디올러스(Gladiolus) 등을 심을 수 있습니다.

꽃가루(Pollen)가 많이 날리는 시기이기도 하기때문에 꽃가루 알러지(Pollen Allergy)가 있으신 가드너(Gardener)분들은 마스크 등으로 보호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Japanese Kitchen
제페니즈 키친

일본인이경영하는 일식 정통집

일본 정식 (5코스:30불, 6코스:40불, 8코스:50불)
모듬정식(벤토), 해물우동, 튀김 우동,
닭고기정식, 고등어정식, 공치정식, 연어정식
그외 일본 정통음식
(대만) 야끼전문, 고기종류와 해물 외 다수

www.japanesekitchen.com
Phone: (505)884-8937, (505)872-1166
6521 Americas Parkway NE ABQ

Japanese Kitchen
Sushi & Japanese Cuisine

6511 Americas Parkway NE
Albuquerque NM 87110

Phone: 872-1166
Fax: 884-8938
www.japanesekitchen.com

2인자 예찬(二人者 礼赞)



이명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

오랫 동안 기다리며 준비했던 평창 겨울 올림픽이 끝나간다. 매번 보는 것이지만 불과 몇 초 사이로 1등과 2, 3등이 갈려 우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 금메달 수상자만 영웅 취급받고 은메달, 동메달 수상자의 대우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불과 0.01초 차이로 운명이 갈리니 능력의 차이이기보다 그 날의 운이 아닌가 싶다. 그 0.01초를 두고 인생을 걸고 훈련하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훈련해도 꼭 1등을 하는 것이 정말 최고로 잘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불과 몇 초로 1등 했다고 의대고 2, 3등은 울어야 하는 선수들의 고달픔과 회한이 이해는 되지만 또한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세상도 불공평하다. 그래서 꼭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2등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는가? 왜 사람들은 꼭 일인자(一人者)가 되려고만 하는 것일까?

필자는 우리 사회가 2등 인생, 곧 이인자(二人者)의 필요성을 깨닫고 오히려 이인자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평생을 이인자(二人者),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산 내 인생이기에 갖는 보상 심리나 다툼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이인자(二人者)들을 예찬할 수 있는 양식과 문화가 절실해서이다.

한국에서 이인자(二人者)는 별로 인기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일인자(一人者)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인자(二人者)를 자원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대통령을 마치면 대부분 감옥행이니 일인자(一人者)가 꼭 행복한 것은 아닌가 보다. 우리의 불행한 역사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종필 씨를 참 지혜로운 이인자(二人者)로 본다. 그는 군사 혁명 주동자다. 하지만 항상 대통령 다음으로 자리를 지켰다. 후계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도 아픔을 딛고 계속해서 스스로 이인자(二人者) 길을 걸었다. 그는 국무총리로 마감했다. 그런 덕분인지 대통령들이 감옥을 드나들 때도 그는 정치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비교적 평안하게 현재 90세의 수를 누리고 산다. 하도 원수 갚는 것이 필요악으로 착각하는 요란한 세상이니 차라리 이인자(二人者)가 더 나은 것인지 모르겠다.

성경에는 인간 자체가 이인자(二人者)로 창조된 존재임을 본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후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이인자(二人者)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래로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하도록 지으셨다.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하셨다.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절대적 명령이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이인자(二人者)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시기 질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했다. 경쟁심을 고취시키고 일인자(一人者)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부추기고 속였다. 그리고 하나님만 가진 선악 판단권을 훔치게 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이 아닌 인간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적 인간이 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권한을 이인자(二人者) 인간이 빼앗은 것이다. 그것이 최초의 범죄며 인간 불행의 시작이다.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인류의 치명적 죄악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일인자(一人者)로 군림하는 일이 오늘의 세태이다. 인간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싸우고 항거하고 투쟁하고 복수하고 죽이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자리를 찬탈하는 결과가 인간이 일인자(一人者)가 된 결과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다. 참 인간은 이인자(二人者) 되기를 자청하는 자각에서 출발한다고 나는 본다. 인간은 영원한 이인자(二人者)로 자각하는 것이 행복 자체이다. 인간은 부족한 제한적 피조물이다.

나는 어머니 예찬가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는 것은 어찌 나 혼자만의 생각이라. 나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로 믿는 어머니 바보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이인자(二人者)로서 자기 위치를 가장 잘 지킨 분이셨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셨어도 가난한 집안에 시부모를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피셨으며 자식들을 기르신 어머니로서 본분을 지키셨다. 험한 세상에서 이인자(二人者)로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외로움과 좌절이 왜 없었을까?, 그 아픔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그래서 고통과 희생의 자리를 지키는 이인자(二人者) 어머니를 잊지 못한다. 어머니는 피지배자요 남성의 노예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우리 어머니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 스스로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 어머니들을 남자들의 노예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어머니를 너무 알보는 처사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지금의 여성 운동가들처럼 남성을 오히려 지배(최초의 하와가 죄 지음으로 받은 남편 지배욕)하고자 하지 않았다. 자식들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질고를 감내하며 사랑하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것이다. 한 남자의 아내요 어머니는 그래서 지상의

천사들이다.

성경에 이인자(二人者)로 자손들에게 큰 유익을 남긴 분이 있다. 바로 갈렙이라는 유다 족속의 지도자다. 그는 유다 지파 대표로서 뽑혀 다른 족속 대표 11명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었다. 12명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민수기 14:7-8)라고 보고했다. 겁먹고 가나안을 악평하며 불가능하다고 기가 죽은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는 선민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사막에서 시체가 되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었다. 출애굽 1세대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로보암 족속의 지도자로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갈렙은 이인자(二人者)로 그쳤다. 그는 조금도 서글퍼하지 않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았으며 불평도 없었다. 오히려 땅을 분배받을 때 다른 족속들이 살고 싶지 않는 험한 산지, 대부분 사막인 남쪽 지역을 달라고 청했다. 정복하기 어렵고 별로 유익이 없는 땅을 선택한 것이다. 요사이 나라고 뭐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지도자라면 자기 족속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이인자(二人者)로 자처하고 어려운 길을 자청하였다. 후일 이스라엘 나라가 기울어지고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다른 모든 지파는 먼저 망했지만 유다 족속만 오래 남을 수 있었다. 산지가 험해서 외국의 침략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는가? 이인자(二人者)로서 자처하고 후일을 내다보며 고생스러운 길을 택한 갈렙과 유다 민족은 이인자(二人者) 승리의 예표다. 후손들 유다 민족을 축복하여 그 가운데 다윗 왕을 주셨고 그 족속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런 이인자(二人者) 선택의 축복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인자(二人者)로서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런데 인간 구원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여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립보 2:6-8)라고 묘사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젖먹고 기저귀 차고 변소 가고 주무셨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서 목수의 일도 배우셨다. 때가 되어 복음 사역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지만 성부의 명령을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릴 왕 중의 왕, 구세주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다. 철저히 일생을 이인자(二人者)로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완전한 희생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셨다.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며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었고 자신의 죽음이 사명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이다. 그분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다.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은 참 이민 목회가 힘이 들었다. 사실 나도 그중에 하나다. 한국인 이민 교회 목사로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장로 등 직분 자를 세우는 일이다. 어쩌면 장로는 교회에서 이인자(二人者)로 자처해야 할 직분이다. 교회가 직분의 등급이 있을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목사와 회중의 중간에서 이인자(二人者) 노릇을 잘하면 교회도 화평하고 자신도 크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직책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이리 시끄러운가? 다 일인자(一人者)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이 땅의 어머니들처럼, 성경의 갈렙처럼, 아니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이인자(二人者) 되기를 자처하고 사명으로 감당하면 어찌 평안이 없고 높임 받을 수 없겠는가?

이인자(二人者) 되는 것이 쉽다는 말이 아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말이다. 일인자 하나님이 이인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한 것처럼, 일인자 남편, 아버지가 이인자 아내, 엄마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이인자 아내가 일인자 남편을 순종하는 가정이라면 이것이 행복한 낙원 아니겠는가? 이번 올림픽에서 2,3 등 아니 메달을 따지 못한 모든 참가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넘치기를 빈다. ■



Sushi Hama
Japanese Restaurant & Sushi Bar
5:00-8:00 P.M. Daily
식당비즈니스를 505-293-6055
매매합니다 2918 Eubank NE
Albuquerque, NM 87111
(Corner of Eubank and Candelaria)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n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사계절이 다 독서의 계절

한승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전도사

Programmer/Analyst

UNM Health Science Center



몇 년 전에 조선왕조 500년 극작가인 신봉승 교수가 제대로 된 지식인이나 교양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혹의 나이를 채우기 전에 최소한 600권의 문학, 역사, 그리고 철학서적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한적이있다. 이를 문사철(文史哲) 600권이라 칭했었다.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남자라면 죽기전에 다섯 수레의 책은 읽어야 한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몇 권의 좋은 책만이라도 꾸준히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 성경 한 권을 꾸준히 1년에 통독만 해도 66권의 책을 읽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T 강국이라 말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책 읽는 양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진하다는 것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지 않아도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며 자연히 알게 된 사실이다 (*1). 나 또한 개인적으로 한 달에 2권도 되지 못하는 책 분량을 읽고 있지만, 독서리스트를 만들고 가까운 친구와 책을 교환하며 꾸준히 읽고 있는 편이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성경 통독 한 번 하지 않아 구약의 내용을 들은 것만으로 종합해 뒤죽박죽으로 이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나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의 말씀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 졸업 후 일하는 데만 바쁘다는 이유로 교양서적 한 권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철학이라 하면 무슨 사주보는 것이나 역학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나 현실과 무관한 무슨 상상의 난해한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있다.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 것이 바로 문·사·철(文史哲)이다. 어떻게 보면 성경 또한 질적으로 세상의 최고 문·사·철 종합판인 책으로도 볼 수 있다.

TV 나 영화를 계속 시청하는 것은 두뇌를 수동적으로 만든다. 반면에 책을 계속 읽으면 읽는 것에 대한 것을 머리로 상상하고 생각하게 하므로 두뇌를 활동적으로 만든다. 나이가 들어도 치매에 안 걸리는 사람들은 인지능력 비축이 (*2)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즉 치매 걸리는 사람과 비슷한 속도로 뇌세포의 연결이 악화하고 있지만 치매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 비교해 전에 뇌세포끼리의 연결이 (synaptic connections) 더 많아서 그냥 치매 증상만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뇌세포들의 연결이란 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어려운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씨름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조금씩 더 힘들어지지만, 어린아이가 배울 때 생기는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 나이가 들었다고 머리가 굳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세포들의 정보처리 속도가 조금 느려지므로 그냥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무엇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냥 쉽게 지나치고

책 읽기는 힘든 노력 같아서 쉽게 TV만 시청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인지능력 비축은 성장할 리가 없다. 뇌세포는 서로 더 연결하라고 있다. 읽었던 책들도 다시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고 어려워 읽지 않았던 책들도 도전해 읽어보면 더 많은 뇌세포의 연결을 촉진하게 된다.

그리고 꼭 600권의 책을 읽었느냐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과거의 정식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Moody, Tozer 같은 훌륭한 사람들은 성경과 Shakespeare 같은 명작 몇 권을 가지고 수년 동안 혼자 책상 앞에서 독학한 사람들이다. Mark Twain은 5학년까지만 학교에 다니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책과 씨름한 인물이다. 많은 책보다 어떤 책들을 읽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마음이 위에서 내려오는 영감을 누리며 높이 비행하며 배운 사람과 단어 하나하나 씨름하며 학구적으로 배운 사람에게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당연히 두 가지 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라 문·사·철(文史哲)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1. 선택

역사적으로 더 고전일수록 인간 문학에 준 영향이 더 깊고 클 수밖에 없다. 아직 출판되고 있다는 자체가 시간의 리트머스 테스트를 통과해 그 중요성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현대인들에게는 글 표현이라든지 저자의 문화, 언어, 시대 및 생각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읽기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 읽기 쉽게 또는 설명이 추가된 책들로 시작한다. 아니면, 추천 독서리스트를 참조해 읽기 시작한다. 문·사·철로 분류된 책들 중 현대에 가까울수록 문·사·철 자체와 무관한 것들만 주관적으로 수록해 놓은 가치성이 떨어지는 책들이 많다. 군것질만 하면 건강이 나빠지듯이 책도 읽으면 살과 피가 되고 정신에 약이 되는 것이 있고 달지만, 정신을 썩게 하는 것이 있다. 단것만 찾아 읽지 말라.

2. 방법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읽는다. 제일 흔한 핑계가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핑계를 하는 사람은 너무 쉽게 재미있는 1시간 드라마나 오락을 즐긴다. 인생은 짧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시간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어느나라 사람이 책을 많이 읽나?

책을 오랫동안 읽지 않았다면 모르는 단어들이 제일 큰 벽이 된다. 전화기에 사전 앱을 깔고 사용하라. 네이버가 인터넷상으로 흔히 사용되는 사전을 최고로 잘 만들고 있다. (dic.naver.com) 한 번 찾아서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아무리 이미 찾은 것 같은 단어라도 자주 반복해서 찾다 보면 자연히 기억하게 되고 읽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게 돼있다.

읽을 분량을 정하고 일단 그냥 읽은 후에 필기하라. 처음엔 작게 시작해 하루에 최소한 한 문단씩이나 한 장씩 읽기로 하고 지키면 된다. 그리고 그 읽은 분량을 자신의 말로 노트에 필기하라. 펜은 정신을 깨우는 도구라는 말을 한 교육자가 있다 (Hendricks). 필기함으로 나중에 돌아와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책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다시 팔 생각이 없다면 책에 필기하는 것에 두려워 말라. 옛날에 책이 귀한 시절에는 책에 필기하는 것을 큰 죄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다. 서양에서는 읽은 사람이 책 페이지 주위에 필기한 노트가 수백 년 동안 타인에게 이해를 돕는 주석처럼 여겨져 왔고 지금은 footnote 등으로 공식화되어있다.

3. 공유

그 책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 말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누라. 만약 실천할 사항이 있다면 실천 기록서를 작성하라. 생활과 관계에 무관한 독서란 없다. 모든 바른 지식은 현실에 적용되기 마련이다. ■

*1: <https://www.statista.com/chart/6125/which-countries-read-the-most/>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인도가 제일 많이 읽고, 한국의 독서 시간이 제일 짧다.

*2: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539.1423&rep=rep1&type=pdf>

Which countries read the most?

Hours spent reading per person per week (selected countries)



Source: NCP World CultureScore Index, indy100, The INDEPENDENT, statista

World Culture Score Index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도사람의 매주 독서시간은 평균 10시간42분으로 가장 높고 중국인은 8시간으로 3위, 미국은 5시간32분으로 23위, 일본은 4시간 6분으로 29위, 한국은 3시간6분으로30위가 된다고 발표했다. ■

Mi Kyong Kim
Mortgage Banker
NMLS #512561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Albuquerque, New Mexico 87107
www.bankofalbuquerque.com/mikyongkim
E-Mail mkim@bokf.com
Direct 505.855.0586
Mobile 505.379.2944
Fax 505.855.7301



김미경

주택융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성심을 다하는
부동산 전문가
그레이스 김

Grace Kim
김 천

Associate Broker/Realtor



주택

토지

사업체

R1 REALTYONE
OF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전화: c 206.765.0836 o 505.883.9400

E-mail : kgrace7@msn.com

9674-3 Eagle Ranch Rd NW Albuquerque, NM 87114 웹사이트 : www.realty1newmexico.com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일리노이주에서 출판된 자료임으로 2018년 뉴멕시코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편집부)

3-3 Child Care

홍련이를 반에 데려다 주고 윤춘향과 동엽이 엄마, 김선덕은 학교 근처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눈다.

“선덕아, 넌 어떻게 살았어? 남편은?”

“그동안 바빴지.. 결혼해서 애 낳고 살림하고, 정신없이 뭐, 난 주 중엔 유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학원 비서로 파트타임으로 일도 조금 하고 있어, 일 하거나 학교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이 학교에 아이를 못 보내잖아. 남편은 한국 분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어. 다행히 거기서 스폰서를 해 줘서 영주권이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 아는 분이 여기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형편에 맞게 수업료도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선생님도 한국 분이 계셔서 나 같이 영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넘 감사하지. 우리아들 동엽이도 친구들이랑 금방 잘 사귀고, 영어도 처음엔 하나도 못했는데 지금은 제법하더라구. “맞아 나두 누가 소개해 줘서 왔는데 믿고 애를 맡길수 있어서 잘 한거 같아. 근데 난 네일 가게에서 일하는데 손님이 요즘 별로 없어서 일하는 시간을 파트 타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홍련이가 여기서 학교 다닐 수 있을까? 부모가 풀 타임으로 일해야 되는거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아닐걸? 학교나 파트 타임이면 될 것 같은데, 학교 사무실에 한번 물어봐.”

“그래야 겠다. 암튼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자주 얼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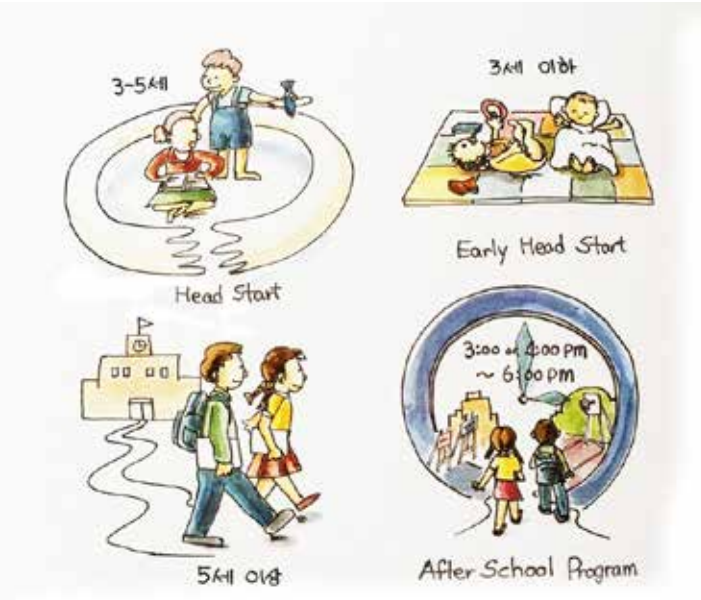
“나두 넘 좋다. 그럼 이따가 또 학교에서 만나.”

전문가의 한마디

Child Care

■ Head Start 란 무엇입니까?

Head Start 란 아직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연방 정부 프로그램으로 각 카운티에 소재하는 지역 비영리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생후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아동들의 전인적인



눈이 펄펄 오는 이른 아침...눈을 털며 유아원에 2살 홍련이의 손을 잡고 윤춘향씨가 들어온다. 그때, 아이를 학교에 막 내려놓고 급히 나가려는 동엽이 엄마는 윤춘향씨와 마주치게 된다.

깜짝 놀라는 동엽이 엄마, “어! 너 혹시 춘향이 아냐? 웬일이니...너 시카고에 살았어? 넘 반갑다. 맞아, 너 우리 동창중에 제일 먼저 결혼해서 미국에 갔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것 같은데 여기서 만나네..” 윤춘향은 뜻밖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반가워 하며, “어머, 넘 반갑다. 어쩔 이렇게 만나니, 난 시카고에 온지 벌써 15년쯤 됐어, 근데 너 애두 여기 다녀? 몇살이야?”

“응, 우린 여기 다닌지 얼마 안돼, 난 4살 아들, 넌?”

“난 아들 둘 하고, 2살인 늦둥이 딸이 있지, 너 바쁘니?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애 내려주고 우리 차 한잔 하면서 얘기 좀 하자!”

“그래, 난 오늘 시간 괜찮아, 마침 오늘은 일 안 하거든, 얼른 아이나 빨리 반에 데려다 주고 와.”

“응, 잠깐 기다려.”

발달을 도모하고 성인 가족의 취업 및 자립을 도우며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교육하고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입니다.

■ Head Start 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프로그램은 모든 어린이들이 성공적으로 양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장애 아동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속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3세에서 5세 사이이며 특정한 곳에서는 신생아나 어린 아기 (0-3세)들을 위한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Head Start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어린이 조기 교육 및 장애 어린이에 대한 특별 교육, 부모에 대한 어린이 양육 교육
- 건강 서비스 - 의과, 치과,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예방접종, 영양관리, 상담 등
- 소셜 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Head Start 가정이 해당 소셜 서비스를 수혜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
- 부모들의 자원봉사자로서의 프로그램 참여

Head Start 프로그램에 참가 등록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반나절만 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center-based program). 그러나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학교에서 보내는 곳도 있으며 집으로 와서 어린이를 돌보아 주는 프로그램 (home-based program) 도 있으며 이 경우 부모에게 자녀 교육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Center-based program에서는 통학 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실에서의 시간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용되며 매일 다른 아이들과 작은 그룹을 이루고 안전한 야외 시설에서 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영양가 있는 점심을 제공 받으며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식사 후에 이를 닦게 합니다. 또한 좋은 인간 관계와 건강한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받게 됩니다.

■ 누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Head Start 프로그램의 혜택은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가 신청할 수 있으며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은 신생아부터 3세까지의 어린이와 임산부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리스 가정이나 어린이, 포스터 케어의 어린이 또는 웰페어를 받는 어린이들의 경우 수입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방 정부 저소득 기준 금액이하의 월 소득을 가진 가정이 수혜 대상이지만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연방 저소득 기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정의 어린이에게도 자리가 있을 경우 일부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가 3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Head Start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Head Start 프로그램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가정 월 소득이 수혜 자격 범위내인지 다시 확인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가정 소득이 수혜 자격 한도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지역 프로그램의 기준에 부합되면 소득 초과자라도 가입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Head Start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등록 인원의 10%를 수혜 자격 기준이 되는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가진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할애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등록인원의 35% 까지도 추가로 가입시킬수 있으나 연방 빈곤 기준금액의 130% 이하이어야 합니다.
2. 수혜 어린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전환의 일환으로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가 Head Start 프로그램에 해당이 안될 경우 다른 적절한 프로그램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환에 대한 절차는 3세 생일이 되기전 적어도 6개월 전부터 시작 되어야 합니다.

■ 장애를 가진 어린이도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전체 등록 인원의 10% 이상이 특별 교육이나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어린이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규정이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Head Start 와 Early Head Start 는 어떻게 신청할수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정규학교 학기처럼 가을 학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밀리므로 3월, 4월 중에 일찌감치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우선 자신이 “저소득” 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우선 대상 어린이의 가구소득은 4인 가족 기준 2만 2,000 달러 이하 (2013년도 연방 소득 가이드라인 기준)여야 합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소득증명 (W-2), 급여명세서, 거주증명서, 해당 학생의 소셜번호 등입니다. 비시민권자는 I-94 (출입국 신고서) 등을 갖춘 합법체류 학생이거나 각 교육청 국제학생 등록실에 등록된 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Head Start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없는 경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19페이지로 계속>

주를 앙모하는 자 Part 4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 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 하는 자 늘 강건 하여라”
찬송 354 장 1 절

요셉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갔던 청년”, 또는 “애굽에서 총리대신이 되었던 청년”,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등등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 경험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창세기 2장 24 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어다”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결혼에 대한 대원칙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축첩을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이런 관례를 따라 두 아내를 가졌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 하는 줄 알았는데 라반의 술수로 첫째 딸 레아와 혼인 하게 되었고 또 힘든 노역을 7년 더 계속해서 둘째 딸 라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레아 보다는 라헬이 더 예쁘고 아름다워서 더 마음에 들었던 듯 합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6명, 그리고 딸 디나가 있었고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2명,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난 아들이 2명 또 라헬의 여종 빌하에게서 난 아들이 2명 모두 12명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결혼 풍습이 있었다는 것은 현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성경은 그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12 명의 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열두지파가 생겼습니다. 즉 열두 지파의 이름이 아래와 같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1) 루우벤 (Reuben), 2) 시무온 (Simeon), 3) 레위 (Levi), 4) 유다 (Juda), 5) 단 (Dan), 6) 납달리 (Naphtali), 7) 갓 (Gad), 8) 아셀 (Asher), 9) 잇사갈 (Issachar), 10) 스불론 (Zebulun) 11) 요셉 (Joseph), 12) 베냐민 (Benjamin)

이 많은 아들의 개성이 막말로 천차만별 이라 다 여기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장자권은 마땅히 루우벤이 가져야 했었지만 철없는 실수(?)로 아버지의 눈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우벤은 형제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고 빈정대며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래서 는 않 된다고 타일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시무온과 레위는 자기들의 누나인 디나가 하물과 세겔에게 잡혀가서 많은 치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다 죽여서 보복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런 해괴한 운명을 가진 유다가 우리 주님의 족보에 포함되었다는

김준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치욕스러운 불륜의 사건이라고 생각되지만, 로마서에 있듯이 죄가 더 한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을 말해주는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성도님 중에 아들이나 딸을 두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특별히 애착이 가는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야곱처럼 차별 대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제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요셉과 열 명의 형들과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 장 3-4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 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런 와중에 형들의 마음에 더욱 앙심을 품게 한 것은 요셉이 두 번이나 꾸었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해서 그들의 시기심을 부채질 했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슬퍼 하며 지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 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 일을 시작했는데 그의 출중한 성품은 보디발의 신뢰를 받아서 가정 총무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열일곱 살에 팔려 온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해서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며 엉뚱한 일을 벌일려고 꾀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요셉을 날마다 꼬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절하자 노예놈이 안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고 역심을 품은 보디발의 처는 교묘하게 거짓말을 꾸며 요셉을 시위 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고 항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모두 13년간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비록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애굽의 어느 누구도 바로 왕의 꿈을 설명하지 못했던 것을 요셉이 딱 마쳤고 바로의 신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요셉의 해몽대로 7년 풍년, 7년 흉년으로 비참한 상황이 되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잘 처리해 나갔습니다.

독자 여러분, 어째서 요셉이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살이를 하면서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한 요셉의 인품을 우리도 배워야 할 줄 압니다. 아주 불리한 환경에서도 사리 판단을 잘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 하는 간신배와 같은 행동을 안 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요셉의 마음을 닮아 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9장 21-2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극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본 간수장은 그에게 옥 안의 모든 업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옥 안에서 여러 일을 맡아 잘 처리했습니다. 또한,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 하는 것을 요셉이 정확하게 설명해서 결국 총리대신의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맡은 업무를 아주 성실하게 그의 직분을 남용하지 않고 수행하여 바로로 부터 100 % 신임을 받았고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기막힌 이야기는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의 만나서 진행되는 일로 절정을 이룹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세요!!! 파지기를 좋아 하는 저에게는 이해가 안되기도 하고 그저 “확 분풀이를 할것 같은데”였습니다. 바로의 꿈대로 처음 7년 동안의 풍년을 맞아 많은 곡식을 저장했고 그 다음 흉년이 시작되면서 저축했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결식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은 비록 애굽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심해서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 왔다고 했습니다. (창 41:57 절) 가나안 땅에 살고있던 야곱의 가정도 이 사실을 알고 애굽으로 10명의 형들을 양식을 사오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Rest of story 는 요셉이 형들에게 창 45: 5 절과 8 절에 다음처럼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한가지만 알고 열 가지를 모르는 사람들과 열 가지를 다 알지만 자기를 낮추고 상황 판단을 기막히게 잘하는 요셉 같은 아들들을 둔 야곱은 정말 복 받은 가장이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의 총리대신이 되었다고 말했더니 야곱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했던것을 다 말해주고 아버지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 요셉을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전 가족 수는 66 명이었고 요셉의 4식구 까지 합하면 모두 70명 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 고센 지방에 있는 라암세스에서 정착하였고 그 후로 야곱의 자손들은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제 자신도 어렵고 힘들었던 고비가 있었지만 그 고비를 지날 때 마다 많이 실망도 하며 지냈었습니다. 지금 다시 어렸을 때 부터 겪어 온 여러 상황을 회고해 보면 정말 저의 가정에도 긴 세

월 동안 축복을 내려 주시려고 연단도 해 주시고 참고 또 참을 수 있는 지구력도 더해 주셨다고 깨닫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불만에 가득 찼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갔고 보디발의 처로부터 터무니 없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했고 바로의 희안한 꿈을 해몽해서 이 지구상에서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대신의 일까지 했더니 이런 기막힌 사연을 그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 깊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특출한 지혜를 받았습시다라는 자기의 극한 상황에 서적합한 성경구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어머니의 진실한 마음씨를 받았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들은 현재 신구약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옥 같은 구절들, 꼭 지켜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에 참여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구절들을밀줄을 다시 그으며 읽고 있을 줄 압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저는 제 마음 판에 새겨진 것들 중에서 요셉처럼 “뜨겁게 서로사랑하며 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 멘 ! ■

행복한 미국생활 Child Care (계속)

만약 Head Start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Child Care Aware Program 을 통해 거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찾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800-424-2246 을 통해 문의하세요. Head Start 프로그램에 대한 웹사이트는 http://www.nyc.gov/html/acs/html/child_care/headstart.shtml 입니다.

■ 5세 이후,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아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폭력과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뉘어 지는데, 첫째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경우 다양한 지역 사회 단체나 학습 단체 등을 중심으로 (YMCA, YWCA, 청소년단체, 사립학원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번째는 학교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으로서, 학업성취, 보충수업등에 기반을 두어 학교의 교사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교육청 등의 교육 평가기준 및 목표에 적합하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주로 오후 3:00-4:00시 사이에 시작되며, 오후 6시까지 끝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After School Program) 은 보통 학교 밖 프로그램 (Out of School Program)과 함께 쓰이며, 수업 전, 후, 여름, 주말,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활동들도 포함합니다. ■

선교와 전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 그의 첫 한국 방문과 알버커키

세계적인 복음 선교사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빌리 그레함'으로도 표기했었다) 목사가 지난 2월 21일 99세로 소천하셨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전 세계의 기독교를 부흥시킨 위대한 인물이며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에게 기도와 조언을 해주는 영적 멘토 역할을 해왔다.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찾아간 나라가 185개국이나 되고 집회 횟수는 400회가 넘는다. 집회를 인도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1973년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열린 집회는 100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 그의 생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 기록을 세웠다.

필자는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의 기독교 부흥에 이바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던 과정에서 그의 첫 한국전도 여행이 우리가 사는 알버커키와 묘하게 얽혀있는 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놀랐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한국의 첫 방문을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1952년 10월 하순 무렵이라고 빌리 그레이엄 센터에서 발행한 1952년 '한국 크리스마스 방문' 일정표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때 일선 장병을 위문하며 전도 집회를 열 수 있게 해 달라는 청원서를 미 국방성에 제출해 놓고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한경직 목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 한국에 와서 전도 집회에 설교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사들도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한 것이 한국방문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공교롭게도 한국 방문 직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전도 집회를 하고 있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닌 알버커키였다.

알버커키 전도 집회는 11월2일부터 시작하여 4주 동안 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는 마치 한국에 갈 준비를 하는 집회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를 11월 28일 자 알버커키 저널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날의 기사를 보면 집회의 마지막 날인 11월 30일 오후 집회에서 한국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을 갖겠다는 예고를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날 드러진 특별 자선헌금은 한국에 직접 가지고 가 전쟁으로 고생하는 한국인을 위해 쓰도록 전달할 것이며 쓰인 내용을 알버커키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기사가 나 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경화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장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보냈다는 기록과 유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알버커키에서 1952년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한 것은 55명의 지역 목회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초청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다. 당시 인구 10만 명밖에 안 되는 알버커키에는 집회를 열었을 때 참석이 예상되는 수천 명의 인원을 수용할 만한 대형 건물이 없었다. 지금의 농구 경기장, 1만 5천여 명의 수용 가능한 UNM Pit은 말할 것도 없고 UNM 존슨 집 체육관도 지어지기 전이었다. 집회 준비위원이 고심하던 문제의 해결은 그 당시 알버커키 유지 중 하나인 샌더슨 가족과 만남으로 해결됐다. 샌더슨 씨는 톨러스케이트 경기장을 지을 계획으로 건축자재를 산마테오-센트럴가 근처 부지에 잔뜩 쌓아놓고 있었으나 건축 허가가 나오질 않아 고심하던 중이었는데 집회 준비위원이 샌더슨 가족을 설득하기를 설게 변경해서 집회를 위한 5만5천 제곱피트 건평의 건물을 짓자고 했다. 합의가 이루어져 '알버커키 전도 십자군 성막'(Evangelistic Crusade Tabernacle)이란 이름의 건물을 초 급행으로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집회 장소 문제가 해결됐다.

1952년 11월 2일부터 4주간에 걸쳐 알버커키 전도 집회가 열렸다. 마지막 주에 이르러 집회는 절정에 이르러 추수감사절인 목요일에는 7천 명, 마지막 날인 11월 30일 주일은 8천 명이 넘어 좌석이 모자라 조금이라도 빈 공간이 있는 곳에는 임시 의자를 짝짝 채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4주간 집회의 총 참가인원 12만 3906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신자가 무려 3666명에 이르렀다. 마지막 주일날에는 한국을 위한 특별헌금을 했고 2주 뒤에 한국에 도착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전쟁고아와 모자원을 포함하는 어려운 전쟁 피해자를 위해 기금을 전달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가 10만 명, 남편 잃은 전쟁미망인이 20만 명에 이른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비극적인 사실이다.

미국의 여러 도시 중에 하필이면 알버커키가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통해 자선금을 보내는 도시가 되었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숨어 있는 듯하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했던 2000명의 한인 목회자 중에서 대표되는 분은 또 한경직 목사였다. 알버커키에서 폐결핵으로 2년간 고투하던 중 치유의 은사를 입고 귀국한 1930

년 초기의 신학생이었던 한경직 목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초청한 것이다. 이렇게 알버커키 도시는 묘하게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한경직 목사 두 사람을 택해서 쓰면서 연결 고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다.

한국방문 계획은 세워 놓았지만 알버커키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도 국방성에 제출한 한국방문 청원서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아 한국에 있는 일선 장병을 방문할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집회가 끝나자 한국행 허락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알버커키에서 LA로 가는 비행기를 탄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로스 앤젤러스에 도착했을 때 국방성 허가가 나온 사실을 알게 된다. 12월 2일이다. 어찌 보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도중에 국방성에서 허가가 나온 것도 같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해 행군할 때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었지만, 법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넣자마자 강물이 끊어진 기적을 보는 듯한 얘기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LA에서 12월 5일 하와이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때 한국으로 같이 가는 동역자 몇 분과 합류하는데 그중 한분이 한경직 목사와 함께 월드비전을 창립한 밥 피어스 목사다. 호놀룰루에서 그 주일에 나갈 라디오 방송 “Hour of Decision” 프로그램을 마치고 12월 7일 일본 동경행 비행기에 올라탄다. 동경에서 현지에서 와 있는 750명의 선교사를 만나고 한국전 부상병들이 치료받고 있는 육군병원, 극동 사령부 담당 군인들과 군목을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낸다. 12월 14일 라디오 방송 “Hour of Decision” 프로그램 녹음을 마치고 동경을 떠나 드디어 한국땅 부산에 도착했다.

그 당시 한국은 전쟁이 난 지 3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고 부산은 피난민으로 차 있었다. 도착 첫날은 그곳에 있는 미군 장병을 위한 예배를 인도했고 이튿날은 다비다 모자원을 방문하고 나서 한국인을 위한 집회에서 설교했다. 한경직 목사가 통역을 맡았다. 대구로 이동하기 전까지 여러 번 집회를 갖고 또 군인병원, 어린이 병원 등을 방문했다. 12월 17일은 야외집회를 열었는데 함태영 부통령도 참석했다고 한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6000명의 인파가 모였는데 길바닥에 명석을 깔고 앉기도 하고 서서 말씀을 듣기도 했다. 군중 중에는

미군 병사도 여러 곳에 섞여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신자는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한국 사람 속에 미국 병사들도 섞여 나왔다고 한다. 특히 한국인 사이에 섞여서 흑인 병사와 백인 병사가 나란히 걸어 나오는 모습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에게 더 없는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12월 19일 대구에 하루 들러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고아원과 병원을 방문했고 저녁에는 전도 집회를 가졌다.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길을 수마일 피어스 목사와 함께 걸어서 찾아간 고아원에서 눈먼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일어서서 ‘하나님 사랑’이란 찬송가를 불러 주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대구의 고아원을 방문한 그레이엄 목사

서울로 이동하여 12월20일부터 25일 사이는 가장 바쁜 일정을 보냈다. 미8군 사령관 밴프리트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고 군용 헬리콥터를 타고 서부 전선, 중부 전선 그리고 동부 전선에 있는 부대 장병을 위한 집회를 찾아갔고 영락교회에서도 집회를 했다. ‘난방 시설이 전혀 안 된 베다니교회(영락교회의 당시 이름)는 아이스박스과 같이 추웠는데 1400명이 본당을 채웠다’고 영문 신문기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천에 정박해 있는 덴마크 병원선 Jutlandia에 가서 죽음 직전에 있는 장병을 찾아가 기도하는 시간도 보냈다.



영락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레이엄 목사와 통역하는 한경직 목사

일선 장병들에게 복음과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는 집회는 천막도 없고 의자도 없는 눈 덮인 언덕이었고 군인들은 추운 겨울 서서 말씀을 듣는 그런 야외집회였다. 그의 겨울 방문 기간을



크리스마스 식사 직전의 그레이엄 목사



크리스마스날 일선장병들에게 설교

통틀어 장병 7천 명이 집회에 모였고 1000명의 장병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12월 25일 두 차례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고 크리스마스 식사를 장병들과 함께 하고 나서 부산을 거쳐 한국을 떠났다.

한국방문을 마치고 난 후의 소감을 '너무나 많은 비참한 전쟁의 상처를 대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30여 년 동안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며칠 동안의 한국방문 기간에 흘린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이어서 '자신이 어린아이로 한국에 왔다가 성인이 되어 가는 기분'이라고 했다. 전쟁의 아픔과 슬픔을 더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집회 경험이 자신을 더 성숙한 목사로 키워주었다고 한국방문을 회상했다.

알버커키 프레스비테리언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한국에 간 유학생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집회 설교 통역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곳의 요양원에서는 직원이나 환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은 알버커키 프레스비테리언 병원 100년사를 저술한 Mo Palmer 여사를 통해 입수한 1953년 3월에 발행한 요양원 소식지 Sanatorium Quarterly에 실린 토막 기사에서 볼 수 있었다. 그 기사를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기사 제목:〈우리의 한경직과 빌리 그레이엄〉

(Our Kyung Chik Han and Billy Graham)

장로 교인의 생활(Presbyterian Life)이란 잡지의 최근호에 발표된 기사에 의하면 우리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신학생 한경직(그가 여기 있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이 한국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한국 집회를 인도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통역을 맡아 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에게 이번 집회는 분명 감격스러운 체험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2차 한국 방문은 20년 뒤인 1973년 5월이다. 이 집회는 한경직 목사가 대회장이 되고 17개 교단이 연합해서 준비한 집회였는데 50만 명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으나 집회 3일째 날은 110만 명이 모여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전도 집회 중 가장 많은 인파를 모았던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이 집회에서 설교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 실황은 알버커키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중계했다. 한밤중 UNM 근처에서 운전하던 중 자동차 라디오를 틀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짹짹한 말씀이 나오고 영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유창하게 한국말 통역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었다. 이 먼 곳 알버커키 방송에서 여의도 집회 중계방송을 듣다니..... 감격하며 방송을 들은 기억이 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를 통역했던 그때의 김장환 목사는 그날의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번 그레이엄 목사 장례식에 초청되어 외국 목사를 대표해서 조사를 낭독했다.



조사를 낭독한 김장환 목사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의 집회

필자의 가족이 그레이엄 목사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1975년 UNM Pit 농구경기장에서 열린 알버커키 두 번째 집회 때이다. 3일간 집회였는데 입장권은 며칠 사이에 매진되었다. 집회 시작하자 연단에 선 그레이엄 목사는 “알버커키가 지난 20년 사이에 이렇게 커진 것을 보고 놀랐고 리오란초에 인텔이 들어서서 컴퓨터 칩이 여기서 나온다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더 놀랐다”라는 간단한 몇 마디를 하고는 곧장 말씀으로 들어간 것이 기억난다. 그다음에 1998년에 세 번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방문도 Pit을 만원으로 채웠다. 이때의 집회는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과 함께 하는 집회였다. 3일간은 프랭클린 목사가 설교했고 주말의 2일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설교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종교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인물에게 주어지는,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템플턴 상을 1982년에 10번째 수상자로 수상했다. 10년 뒤인 1992년에는 20번째 수상자로 한국의 한경직 목사가 이 상을 받았다.

오랫동안 병환으로 고생하시던 그레이엄 목사는 지난 2월 21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자택에서 향년 9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시신은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의 수감

<23페이지로 계속>



의사당 중앙 홀에서 추모식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 (626)272-1042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모임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22페이지에서 계속 빌리 그레이엄 목사>

자들이 만든 송판으로 만들어진 관에 누워 젖고 시신은 장례식 전 워싱턴 DC로 잠시 옮겨져 국회의사당 로턴다(원형 홀)에 이틀간 안치되어 일반 시민의 조문을 받았다.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스도의 대사이었던 그레이엄 목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짓밟히고 슬픔에 잠긴 사람, 소외당하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일반의 조문을 마치고 시신은 3월 1일 고인의 고향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으로 다시 옮겨

3월 2일 2000여 명의 조객이 참석한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 옆에 설치한 천막에서 장례식이 엄수됐다. 고인의 시신은 지난 2007년에 별세한 부인 고(故) 루스 그레이엄의 곁에 묻혔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평소에 말하길 자신이 언젠가 죽겠지만 나의 죽음이란 죽음이 아닌 나의 살고있는 주소 변경일 뿐이라고 했다. 돌아가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한경직 목사가 같은 주소에 살게 됐으니 두 분 오랜만에 만나서 한국애기와 알버커키 얘기를 서로 나누고 계시리라 믿는다.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 | | | | |
|---|--|---|---|---|
| 알버커키 Albuquerque |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 주택용자 Loan Officer |
|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505-242-8542) |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uerque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
|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BQ (505-275- 9021) |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 부동산 Realtors |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
|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 Salon 47(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 치과 Dental Clinic |
|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 건축/페인트 Painting |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47 (505-296-2335) |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 세탁소 Dry Cleaners |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
|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 공인회계사 CPA |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 태권도 TaeKwonDo |
| Asian Pear 508 Central SW, ABQ (505)766-9405 |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 Plance Hair Salon(Tina) 4300 Ridgecrest Dr NW (505-907-9229) | Dynamic taekwondo acad- 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
|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 리커스토어 Liquors |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 한의사 Acupuncture |
|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 899-0095) |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 자동차정비 Auto Repair |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
|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 의류 Clothes |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
|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505-345-0960) |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 교회 Church | 화랑 Gallery |
|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BQ (505-338-2424) |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 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 Park Fine Art Gallery (박영숙): 323 Romero St. Suite 6 Old Town, Albuquerque NM87104 (505-764-1900) |
|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 296-8568) |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 하원/원예 Nursery |
|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 331-9584) | |
| | | |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 | | | | |
|--|--|---|--|--|
| <p>사진관 Photo</p> <p>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p> | <p>라스쿠르세스 장로교회: 200 E. Boutz rd, Las Cruces, Las Cruces, NM 88001 전화: (915)329-3451</p> | <p>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 Los Lunas</p> | <p>베이커리 Bakery</p> <p>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p> | <p>백화점 Mart</p> <p>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p> |
| <p>중재서비스</p> <p>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p> | <p>병원 Clinic</p> <p>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 556-0200)</p> | <p>식당 Chinese Restaurant</p> <p>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p> |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p> | <p>식당 Restaurant</p> <p>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p> |
| <p>단요가 Dahn Yoga</p> <p>알버커키505-797-2211 커튼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p> |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p> |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p> |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Liquor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p> | <p>식품 Korean Grocery</p> <p>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p> |
| <p>라스베가스 Las Vegas</p> | <p>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p> | <p>산타페 Santa Fe</p> | <p>교회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626)272-1042</p> | <p>교회 Church</p> <p>화명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p> |
| <p>치과 Dentist</p> <p>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p> | <p>건강식품 Health Food</p> <p>인성내출혈: Los Alamos (505-662-9681)</p> | <p>손톱미용 Nails</p> <p>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p> |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 <p>상점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
| <p>라스쿠르세스 Las Cruces</p> | <p>교회 Church</p> <p>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626)272 -1042)</p> | <p>변호사 Law Firm</p> <p>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p> |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 <p>상점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
| <p>공인회계사 ACC</p> <p>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p> | <p>리오란초 Rio Rancho</p> |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p> |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 <p>상점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
| <p>카페/ 선물 Cafe/Gift</p> <p>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p> |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p> |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p> |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 <p>상점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
| <p>교회 Church</p> <p>라스쿠르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p> | <p>리커스토어 Liquors</p> <p>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 8855)</p> | <p>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p> <p>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p> | <p>교회 Church</p> <p>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p> | <p>상점 Store</p> <p>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p> |

광야의 소리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voiceofnm
voiceofnm.kumcabq.com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18년 3/4월호

발행일 : 2018.3.10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 5-6월호 원고는 4월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 또는 사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KELLY LIQUORS 구인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켈리 리쿼에서 일하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토,일,월,화 12:00-9:00PM
(남, 여 상관없음) 연락처: 505-470-5559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엘버카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HUONG THAO 베트남 식당

Vietnamese Cuisine

Lunch & Dinner Beer & Wine

Tues-Sat 11:00am-9:00pm
Sun 11:00am-8:30pm

1018 B Juan Tabo NE
Albuq., NM 87112 (505)292-8222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

**2018
부활절
찬양예배**

연합감리교회찬양대
바이올린 김은지
지휘 이태길
반주 박영선

일시 : 2018. 4. 1. 11am
장소 :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505-341-0205, 505-803-7716

**2018
Easter
Praise Service**

Violin Eunji Kim
Kumc Choir
Conductor Ted T. Yi
Piano young-shin Park

April 1, 2018 11am
Koeran United Methodist Church
Albuquerque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505-341-0205 505-803-7716

부활절 찬양 음악 예배에 초대합니다.

